

'탄탄한 남해'로 탄소감축 2년간 1.3t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12.22 22:21

1075명 참여, 친환경 행동
관광 사업체 91곳서 QR코드 인증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친환경 관광활동 실천을 도모하는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2년간 1.3t의 탄소를 감축했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친환경 관광활동 실천을 도모하는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2년간 1.3t의 탄소를 감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관광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탄소 절감 행동목록을 마련, 지역 관광사업체 91곳과 함께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목적이 있다. 현재 1075명이 참여해 실천하고 있다.

관광객은 개인 편의용품 지참·다회용 컵 사용·포장지 미사용 등의 친환경 행동을 '탄탄남해' 참여 업체에서 QR코드를 통해 인증할 수 있다.

본인 인증 이후 적립된 탄탄코인을 남해각 등에서 친환경 굿즈로 교환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친환경 관광을 실천하도록 '탄탄남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문화로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남해각 관광플랫폼에서 지난 21일부터 탄탄남해 참여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특별 리워드 다회용 핫팩 선착순 증정 이벤트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신 기자